

2019년 11월 21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이기중 과장(044-201-2551), 황성철 사무관(2555) / 제공일: 11월 21일(총1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경남 창녕(우포늪), 경북 김천(감천)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(AI) 항원 검출

-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(AI SOP)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-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경상남도 창녕군(우포늪)과 경상북도 김천시(감천)에서 11.19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 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, 11.21일 각각 H5형 조류인플루엔자(AI)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.

○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(AI SOP)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,

- ① 반경 10km 지역을 「야생조수류 예찰지역」으로 설정,
-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·검사, 이동통제와 소독,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,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.

※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5일 소요 예정